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7년 6월 발행 (제 86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프리페이퍼

나팔 HP :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권두 메시지 '지나가는 천지' 예레미야

◎시대를 깨닫는 '비유를 깨닫다' H. F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지나가는 천지' 예레미야

오늘은 "지나가는 천지"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하려는 생각입니다. 계시록에는 천지가 사라질 날이 올 수 그려져 있습니다. 이하의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는 천지가 지나가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그 생각을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비유에 대해 말씀 하셨다>

이것을 생각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비유와 수수께끼로 가득 찬 책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비유를 통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4:33 ○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4:34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주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특히 요한 계시록은 비록이 가득한 책입니다. 비유를 이해하지 않고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알아 봅시다.

<천지의 비유>

텍스트는 천지가 지나가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원래 천지는 무엇을 가리키는 비유 한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다음 아브라함의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즉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 질 것으로 말씀하고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며, 신약의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이기도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그의 후손 인 기독교인은 여기에서 하늘의 별, 해변의 모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이있는 곳은 하늘이며, 모래가있는 곳에는 땅입니다. 즉 천지는 기독교인이 존재하는 곳으로 교회를 꽃을 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지와 법>

그런데, 텍스트에서는 천지가 지나가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천지가 지나갈 대해 적혀있는 부분이 밖에도 있습니다. 이하의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6:17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기에는 종말처럼 천지가 지나가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이 구절은 왜 종말의 날에 천지가 지나가 버리는 지 그 이유가 적혀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이 곳에서는 천지가 지나가는 것과 관련하여 율법의 기술이 떨어지거나 비활성화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인 율법의 설명을 떨어 뜨리거나 비활성화하거나하는 것보다 더 교회가 지나가고 붕괴하는 것이 쉬운 일이다 그 일이 쓰여져있는 것입니다.

즉 천지 즉 교회가 지나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조작되거나 공격되거나 비활성화되는 것과 관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이 허용되는 시대>

현대는 어떤 시대 인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의 큰 특징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 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그 의미를 훼손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애 허용)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죄임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1:27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제이 동성애의 죄를 지적하려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교회에서는 동성애자를 목사로 임명하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하여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동성애에 관한 율법에 공격을 가하고이를 무효로하고, 조작하고 무시하려고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모독의 결과 변질되어 버려, 지나가고 망은 천지, 즉 교회 자신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외에 구원이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말씀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나 이에 관하여도 지금 교회에서는 이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황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하는 다원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하는 다원 주의자이고 그녀는 힌두교도가 비록 임종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믿게은 추천 없습니다.

즉 가톨릭 교회는 위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율법에 대한 싸움을 무시하고 공격을하고 그 말씀을 떨어 뜨리고 해제하고 조작하고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있다 "고 교리를 추진하려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만한 교회의 장래는 말씀대로 교회 자신이 지나가고 변질,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성경 번역은 점점 이상한 뜻이 동성애를 촉진하는 이유 페미니즘을 촉진하는 이유 낙태를 죄가 아니라고하는 이유가 점점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적 인 뜻이 통해 저했다고 성경을 기록 된 하나님의 방침이 새삼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성서조차 조작하려는

오만한 배도 교회는 교회 자신이 중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지나간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교회가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동성애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며 불편한 성경 구절을 귀에 좋은 수가 바꾼다고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스르기 보다 천지, 즉 교회가 지나가기가 용이하고 쉽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지나가는 것이 쉬운"

성경은 죄 때문에, 즉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싸움을 무시하고이 말씀을 무시하고 논쟁을 도전 한 죄 때문에 어느 교회 자신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음의 하늘이 지나가는 날 것입니다.

"오래된 하늘과 땅은 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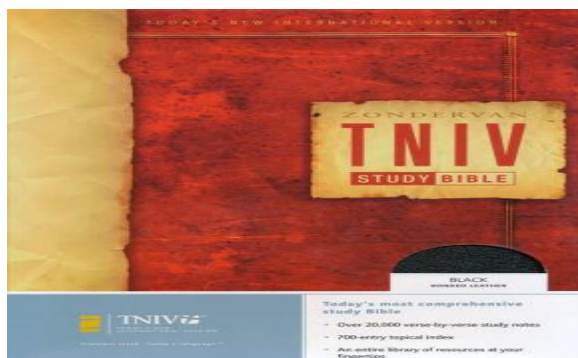
이 곳 이외에도 성경은 종말의 날에 교회가 변질 이동하고 소멸하는 날을 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6:14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여기에 하늘이 사라 소멸하는 날의 일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비유를 이해합시다. 하늘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회의 비유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교회가 소멸 붕괴하고 지나가는 날의 일이 적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늘이 사라질하거나 그 이유로 두루마리에 관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두루마리는 그리스어로 biblion 라고 쓰여져 있으며, 즉 성경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을 바른다 기술 중에서도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17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동성애 위해 변조 된 성경 TNIV 번역

즉 "하늘은 두루마리가 감겨되도록 사라"라는 표현을 통해 하늘 즉 교회가 소멸하고 붕괴하는 것과 두루마리 즉 성경 말씀이 관계하는 것이 여기에 비유를 통해 말씀 것입니다.

짐작했는데, 그 의미는 앞의 부분과 같고, 교회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싸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구부리거나 수정하거나 공격하거나 말을 빼자 시도 결과로 교회 자체가 붕괴하는 그 날을 예언하고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설명서를 본다면 더 명확하게 교회가 배도하는 일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쓰여진대로 종말을 향해 교회는 어느 배도하게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움직이고 지나가고 사라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 자체입니다. 교회는 변질 교회 안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것은 다음 데살로니가 서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에 쓰여져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곧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중간에 그는 곧 적 그리스도가 앉은하게 될 여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아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맞이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이것 이야말로 말 그대로 붕괴 지나간 변질 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궁이 변질 교회가 붕괴은 뿐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날은 또한 예수님께서 예언 된 날이기도합니다. 다음 말씀을보세요.

마태복음 24: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4: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여기에 돌을 잔돈으로 바꾸지 않고, 쌓인 채 남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종말의 날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주님 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붕괴는 물리적 성전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예루살렘에 성전 등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궁이 붕괴 할 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래에 적힌대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교회의 비유입니다.

에베소서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기에 적힌대로 성전과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이며, 그 토대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예언자들의
가르침 더욱 초석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 등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기초석 모두가 붕괴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근본 교리가 파괴되어 그 날에는 교회가 지나가고 사라지고 교회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 예언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지나가고 변질 돼 소멸 해 버리는 이유가
다름 아닌 교회가 감히 모독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싸움을 무시하고 그것을 바꾸고 변질시키고
해제하려고 시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라지고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천지 즉 교회 자신임율이
구절은 예언하고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화한다

이렇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고 거스르는 교회가 도달하는 곳은 계시록에서 다른 표현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이 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3:11 ○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3:12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13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3:14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3:15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3: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3: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에 쓰여져있는 것은 교회의 변질 된 모습입니다.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진

짐승은 어린 양 예수에 따르면, 명목을 가진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교회가 수화하고 마지막에는 짐승의 형상 즉 적 그리스도 뛰어난 위해 사람들을 강제하는 단체가 될 예언되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 않는 사람을 모두 죽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적 그리스도를 경배 않는 것을 죽이는 것을 배교의 교회가 강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조작하려고 뜻 배도 교회는 중 붕괴 변질 교회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날이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음을 알아야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씀에 머물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 봅시다.

- 이상 -



종교 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t)

테레사 수녀

"비유를 깨달아" H.F

시편 78:1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78:2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에스겔 17:2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17:3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술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하나님은 비유와 수수께끼의 말씀과 있습니다. 예수는 "비록에 의하지 않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 (막 4; 34)라고 있어, 성경은 비유와 수수께끼로 가득합니다. 비유와 수수께끼가 해명되어 처음 성경이 알 수 있습니다.

비유를 영으로 깨달음 비밀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34 절에서 "자신의 제자들 만큼은 모든 것을 해명했다."라고 같이 예수의 비유를 깨닫지 허용 된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9 장에서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비유를 깨닫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9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나

9:10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밟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처럼 구약의 신명기 25; 4 의 소는 일꾼의 비유이며,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가축의 수 일꾼 올바른 성도의 비유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동물의 돼지에 대한 올바른 믿음없는 신도의 수를 가리키는 깨닫지합니다. 돼지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창세기 2:24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서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결혼에 대해 엡 5; 32 에서 "이 비밀은 위대합니다. 내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라고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4 의 결혼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비유를 깨닫지는 위대한 비밀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인간적인 지혜 인 '사람의 전설의 학문'에서 비유를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 비유를 깨달을 수있었습니다. 바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비유의 이해 없이는 성경을 깨닫는 것은 없습니다.

결혼의 비유에서 "여자가 교회의 비유"라고 깨달으면 성경에서 '여자'의 의미하는 곳도 알 수

있습니다. 아가가 관능적이고 읽을 수 없다는 신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표면으로 남녀의 연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에서도 여자가 교회의 비유와 깨닫는다면 그런 어리석은 일이되지 않습니다.

구약도 비유와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어날 수가 표시된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기독교인이라면 구약의 비유가 과거 일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는 바벨론, 소돔 등 구약에 나오는 나라가 많은 비유되고있는 것입니다.

비유와 수수께끼를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시대 바리새인과 민중은 성경의 비유를 깨닫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비유로 말하는 예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태 복음 13:11)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 복음 13 : 13 ~ 14 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고는 있지만 보지 않고 듣고는 있지만 듣지 않고 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말한 예언이 그들에게 제공 한 것입니다."라고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교사들은 지도자는 비유의 이해를 깨닫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을까요.

마태 복음 15 : 1 ~ 2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을보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 할 수 있습니다. 마태 복음 15; 3 "왜 너희도 자신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까?"또한 마가 복음 7; 13 에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문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일을 많이하고있는 것입니다."라고합니다.

교사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 쪽을 우선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문으로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비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를 반대 계속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요한 5; 39 ~ 40 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있는 입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려고하지 않습니다."라고합니다. 바로 당시의 교사들은보고는 있지만 보지 않고 ...라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자들입니다. 마태 복음 11:25 에서 예수님은 "천지의 주재 이신 아버지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것을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라고했습니다. 사도 4:13 에서는 당시의 교사들은 사도 지혜에 대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의 대답을보고 또 두 사람이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들 인 것을 알고 놀랐다 하지만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왔다."고 합니다.

성경 전문가가 아닌 무식한 제자 쪽이 성령에 의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수수께끼와

비유는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씀의 비유와 수수께끼를 피상적 인간으로 이해 해석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 신학의 전문가가 쓴 주석서를 의지하여 비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성경 전문가, 지도자들이 장님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시대, 자유주의 신학, 변증 신학 페미니즘 신학 다른 수많은 신학 이론이 있지만, 이들은 성령의 지혜에 의하지 않는 인간 관점의 학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인간의 전설'은 현재의 신학이라고 할수는 없을까요.

교사의 말을 각 사람이 성령으로 음미하지 않고 맹종하고 간다면 예수 시대에 많은 민중이 비유를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은 길을 걷게됩니다. 결국 성령으로 비유와 수수께끼를 깨달아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구분하기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인간의 지혜에 따라 주석이 아닌 영의 비유의 이해가 필수입니다



Christ Ordaining the Twelve Apostles, by Henry Anderson, © 1913

제자는 비유를 깨닫는다